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 인문·사회계 -



• 출제 의도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불변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양극화 시대, 민주주의 규범이 훼손되는 경우가 점점 빈번해진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문제 1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정치사회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정치사회 양극화의 1차적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귀속적 정체성 간의 갈등이 야기한 새로운 균열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체성 정치가 정치 전면에 등장한 미국 사회를 사례로 다룬다. 한국 사회 또한 이와 같은 양극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

문제 1-1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 그리고 그들이 분노의 감정을 갖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근 서구사회에 나타난 양극화 맥락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출제하였다. 이를 위해 성취적 정체성 및 귀속적 정체성 개념과 귀속적 정체성을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문제 1-2는 귀속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분열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향후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출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정당정치의 양극화 양상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대의 가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복합적 정체성 등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 문항 해설

문제 1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정치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정치사회 양극화의 1차적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귀속적 정체성 간의 갈등이 야기한 새로운 균열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체성 정치가 정치 전면에 등장한 미국사회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사회 또한 이와 같은 양극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도록 했다.

문제 1-1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 그리고 그들이 분노 감정을 갖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근 서구사회에 나타난 양극화 맥락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성취적 정체성 및 귀속적 정체성 개념과 귀속적 정체성을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문제 1-2는 귀속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분열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향후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당정치에 나타난 양극화 특징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를 제시하고, 연대의 가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복합적 정체성 등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 방안에 대해 다루는 야스차 뭉크의 저서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나)는 트럼프의 등장과 브렉시트 투표 이후 확산된 포퓰리즘과 그 원인에 대한 논의로 잉글하트와 노리스의 논문 「Trump, Brexit, and the rise of populism: Economic have-not and cultural backlash」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다)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민주주의 작동의 취약점을 살펴보는 스티븐 래비츠키·대니얼 지블렛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라)는 한국 정치가 직면한 상황과 그 원인을 다루는 박상훈의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 팬덤 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과 그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계급에 대한 내용으로 가이 스탠딩의 저서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 공장 감독이랍니다, ㉡ 백인입니다, ㉢ 이민자를 싫어해요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 공장 감독이랍니다, ㉡ 백인입니다, ㉢ 이민자를 싫어해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성취적 정체성, 귀속적 정체성, 소득과 부의 불평등, 분노,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적 선동, 포퓰리즘 운동 - 예시 답안 참조 	15

1-2	<p>【제시문 (다)의 논지를 정리하고, 제시문 (라)와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다)의 논지를 정리하고 있는가? • 제시문 (라)와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지위불안,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 대변, 개인의 정체성 대변, 두려움, 연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복합적 정체성, 시민 자격</p> <p>- 예시 답안 참조</p>	15
-----	--	----

• 예시 답안

1-1.

㉠은 직업적·개인적 지위 기반의 성취적 정체성을, ㉡은 인종, 종교, 국적 기반의 귀속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은 사회에서 덜 안전한 계층이 소득 불평등 심화로 성취적 정체성을 잃고 귀속적 정체성에 침잠하면서 자신보다 편안한 삶을 사는 이들, 또는 비슷한 경제적 위치에 있으나 인종이 다른 집단에게 느끼는 분노를 의미한다. 이 분노는 기존 국민이 민족주의적이며 외국인 혐오를 선동하는 포퓰리즘 운동에 취약해져 이민자가 자신에게서 번영,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267자)

1-2.

(다)는 정체성, 소속감 등의 위협으로 인한 지위 불안이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초래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 (다)는 정당이 정책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 개인의 정체성까지 대변하게 됨으로써, 정당 지지자는 상대 정당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라)의 연대의 가치와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선호로 움직이면서 복수의 정견 간의 합의에 기반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마)의 다문화주의와 복합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시민 자질이 필요하다. (267자)

• 출제 의도

문제 2는 최근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이는 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포와 생성형 AI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정보 진위의 정확한 판단, 기술의 윤리적 사용,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출제된 것이다.

문제 2-1은 딥페이크의 유포와 생성형 AI의 문제에 대해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 속 죄수들의 모습에 비유하여 생각해 보고, 특히 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포 행위에 대해서 밀의 『자유론』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출제하였다.

문제 2-2는 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통으로 인한 사실성의 위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리와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성의 공적 사용에 관한 칸트의 관점과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넘어 행위되어야 할 것의 책임에 관한 요나스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극복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출제하였다.

• 문항 해설

문제 2는 최근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문제의 극복 방안을 다양한 사상의 관점을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포와 생성형 AI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정보 진위의 정확한 판단, 기술의 윤리적 사용,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 2-1은 플라톤 『국가』 동굴의 비유에 등장하는 죄수들의 모습들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문 (가)와 (다)에서 찾고, 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포에 관해 밀의 『자유론』의 관점에서 비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나)의 동굴의 비유에 등장하는 죄수들이 반사된 불빛을 통해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여기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문 (가)의 사람들이 가짜 영상이나 정보를 진짜로 착각하는 모습을, 제시문 (다)의 어떤 사람이 생성형 AI 알고리즘을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확증편향에 따라 자신의 관점에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모두 찾으려 했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밀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딥페이크의 유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비판하도록 했다.

문제 2-2는 오늘날 딥페이크의 유포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실태를 '사실성의 위기'로 보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서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시문 (가)에서 가짜 영상이나 정보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딥페이크의 유포가 사실과 허위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사실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 각 개인이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각종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수용하여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제시문 (마)의 논지와,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넘어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실성의 위기 문제에 대해 인간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제시문 (바)의 논지를 활용해 문제의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이소은·최순욱의 『딥페이크의 얼굴』을 발췌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딥페이크가 인물의 얼굴을 바꾸어 정보를 전달하는 '화자'의 속성을 조작함으로써 사실성의 효과를 자아낸다는 점을 경계하고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비판한다.

제시문 (나)는 플라톤의 『국가』를 발췌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동굴의 죄수들 비유는 인간 인식의 한계와 진리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철학적 상징으로 사람들이 왜 종종 진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며 딥페이크 문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제리 카플란의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고영상 외의 『인공지능 윤리 개론』, 김효은의 『인공지능과 윤리』, 이재국의 『가짜뉴스, 무엇이 문제일까?』를 발췌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생성형 AI 알고리즘의 편향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밀의 『자유론』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제시문은 자유의 제한에 대해 '자유로운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제시문 (마)는 칸트의 『역사철학』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계몽을 위해서는 모든 국면에서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성의 공적 사용이 가능해지면 사회는 진리에 대한 공동의 추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는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과 김문정의 「H. 요나스의 생명철학과 '생명에의 윤리」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이미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넘어 미래에 관한 책임과 관련해 행위되어야 할 것의 책임을 강조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나)의 ㉔에 나타난 죄수들의 모습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문 (가)와 (다)에서 찾아 쓰고, 제시문 (가)의 ㉕ <u>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포에 대해 제시문 (라)의 ㉔ 취향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나)의 ㉔에 나타난 죄수들의 모습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문 (가)와 (다)에서 정확히 찾았는가? 제시문 (가)의 ㉕ <u>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포에 대해 제시문 (라)의 ㉔ 취향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가?</u>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어 및 핵심 개념: 그림자, 공정, 객관, 생성형 AI 시스템, 가짜 영상, 허위 정보, 확증편향, 인간의 자유 예시답안 참조 	15
2-2	<p>【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㉗ <u>사실성의 위기</u>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㉗ <u>사실성의 위기</u>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였는가?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어 및 핵심 개념: 계몽, 이성의 공적 사용, 각종 정보의 진위 여부 파악, 문제의 부당함을 밝힘,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미래의 결과 고려 예시답안 참조 	15

• 예시 답안

2-1. (나)의 ㉔ 죄수들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이다. 이는 (가)에서 가짜 영상이나 허위 정보를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이나, (다)에서 AI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과 유사하다. (가)의 ㉕은 (라) ㉔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가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 즉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249자)

2-2. (가)의 ㉗ 사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에서 강조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 각 개인이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각종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수용하여, 이를

대중들에게 알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바)의 논지에 따라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넘어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즉 미래의 행위를 전망하는 의무로서의 책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유통으로 인한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58자)

• 출제 의도

오늘날 인류는 분명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구생태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비극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생태 재난의 양상은 종말과 파국의 미래를 예감하게 한다. 문제 3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직면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탐문이자 기후정의를 선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다.

문제 3-1은 세계와 사물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강조한 오그노즈야의 개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류세의 재야생화 수권에 적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의 변화와 역사적 맥락에서 권리가 없던 존재에게 권리를 확장해온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의의를 서술하도록 했다.

문제 3-2는 에코사이드(ecocide)와 기후불의(climate injustice)가 초래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3세대 연대권,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특정 집단의 문화·환경적 조건을 파괴하는 에코사이드가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피해에 먼저 노출되는 현실과 인종과 계급, 젠더, 연령, 장애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고통이 가중되며, 주권과 지리에 따라 피해가 차별화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기후위기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 문항 해설

문제 3은 파국으로 치닫는 현대문명과 자본주의의 폭력에 맞서 기후불의의 현실을 명징하게 응시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과 같은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담론 생산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살해가 초래한 사회적 죽음이 일상화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과 국가 차원을 넘어선 연대와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 3-1은 세계인식의 한 방식으로서 오그노즈야의 개념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수권의 재편성과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의 의의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세계를 통합된 전체로 인식하는 오그노즈야의 개념과 특성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나)는 물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재야생화 수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문 (다)는 이제껏 권리가 없던 존재, 즉 유인원, 고래목, 코끼리, 침팬지와 오랑우탄이나 강과 국립공원 등의 동물과 자연에 권리를 부여한 사례를 보여준다. 제시문 (가)의 개념을 활용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 (나)와

(다)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갖는 의의를 기술하도록 했다.

문제 3-2는 제시문 (라)의 에코사이드(생태살해)와 (마)의 기후불의가 초래한 문제를 밝혀내고, (마)의 핵심어 제3세대 연대권과 (바)의 핵심어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를 활용하여 기후정의의 실현 방안을 탐색하도록 했다. 제시문 (라)는 에코사이드의 폭력적 현상을, (마)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 집중된 기후위기가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3세대 연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인공지능 발달 이후 자본주의가 경제격차를 가속화시켰고, 2020년 이후 기후 대격변으로 인간이 더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올라 토카르추크는 『다정한 서술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인식과 통찰력, 종합적인 전체를 의미하는 오그노즈야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시문 (나)는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단지 지구에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연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했던 수력문명이 거의 종말을 고했음을 인정하고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재야생화 수권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제러미 리프킨의 『플래닛 아쿠아』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제시문 (다)는 서구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에서 동물과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사용과 착취를 위한 소유물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들어 이들을 적법한 권리 주체로 인정한 극적 변화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비드 보이드의 『자연의 권리』에서 발췌하였고, 김왕배가 엮은 『지구법학』의 내용을 추가하여 저자의 논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제시문 (라)는 최근 제노사이드(집단살해) 개념을 확장하여 에코사이드라는 용어를 통해 어떤 집단의 통합적 일체성이 해체되는 문화·환경 조건이 파괴되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지구 행성에 가하는 복합적 폭력을 직시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효제의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에서 발췌하였고,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제시문 (마)는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 차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의 배분 또한 불평등하다는 기후불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주권과 지리에 따라 차별화되고, 인종과 계급, 젠더, 연령, 장애가 교차하고 중첩하는 영역에서 고통이 크다. 따라서 기후정의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역사적 맥락 하에 형성된 3세대 연대권의 실현을 들고 있다. 최명애의 『인간 너머의 기후정의』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및 수정하였고, 구정화 외의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사회』에서 인권 확장의 역사 부분을 추가로 서술하였다.

제시문 (바)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변순용 외의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부분 수정하였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가)의 ㉠ 오그노즈야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 재야생화 수권과 (다)의 ㉢ 권리가 없던 존재에게로 권리를 확장하는 작업의 의의를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오그노즈야의 개념을 파악했는가? • 제시문 (나)의 ㉡ 재야생화 수권과 (다)의 ㉢ 권리가 없던 존재에게로 권리를 확장하는 작업의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작성 분량, 어법, 문장표현 능력 등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오그노즈야, 통합된 전체, 상호의존적, 통찰력, 수권의 재편성, 재야생화 수권, 적응적인 접근방식, 흐름에 따라가는 것, 책임, 법인격체, 자연의 권리 - 예시 답안 참조 	20
3-2	<p>【제시문 (라)의 ㉣ 에코사이드와 (마)의 ㉤ 기후불의가 초래한 문제를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찾아 쓰고,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어를 활용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라)의 ㉣ 에코사이드와 (마)의 ㉤ 기후불의가 초래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어를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작성 분량, 어법, 문장표현 능력 등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 제노사이드, 에코사이드, 사회적 죽음, 복합적 폭력, 기후불의, 기후정의, 3세대 연대권,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 예시 답안 참조 	20

• 예시 답안

3-1. ㉠은 세계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 인식하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 관련 없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호의존적으로 연관시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은 관리나 지휘에 치중했던 기존의 수권을 재편성하여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지구 수권의 흐름을 따라가고, ㉢은 인간의 소유물로 인식했던 동물과 자연을 적법한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지구에서 어느 한 종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인간의 자연에 대한 소유와 전유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06자)

3-2. 지구에 복합적 폭력을 가하는 ㉣은 집단의 문화·환경 조건을 파괴하고, ㉤은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피해에 집중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를 초래했다. 기후위기는

인종과 계급, 젠더, 연령, 장애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격심하고, 주권과 지리에 따라 피해가 차별화된다. 따라서 기후정의는 기후-생태 재난의 최전선에 있는 집단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교정적 정의를 확립하여 기후불의를 야기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고, 지구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320자)